

# 한국 종교박물관을 위한 제언

윤 이 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I. 서론: 시대적 요청과 종교박물관

종교박물관은 오늘의 문화사적 단계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종교박물관은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건립하여 운영되었다. 따라서 종교박물관은 사회로부터 폭넓은 관심을 집중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종교가 지닌 사회 및 문화사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종교박물관은 사회로부터 보다 폭넓은 관심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까닭 가운데 하나를 지적한다면 모든 나라의 문화재의 절대다수가 종교문화재라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재의 표피적 특성보다 지구촌으로 축소되어가는 21세기의 세계문화상황이 종교문화박물관을 보다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특히 세계문화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적 다종교상황에서 종교박물관이 한 층 더 요청된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종교박물관이 탄생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박물관은 현대문화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요청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한국의 종교박물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한국의 다종교상황이 지닌 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세계종교사의 흐름을 통하여 종교문화재를 이해하는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끝으로 우리가 한국의 종교박물관을 어떤 시각과 이념으로 건설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논하기로 하겠다.

## II. 한국적 多宗教狀況과 한국문화의 특성

한국사회에는 현재 儒敎, 佛敎, 그리고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基督教과 같은 이른바 세계종교가 공존하면서도 그 어느 종교도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이에 더하여 19세기 중엽부터 활기차게 일어난 수많은 한국자생 民族宗敎가 있으며, 오늘도 많은 신종교가 탄생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구석기시대에 태어난 巫俗이 오늘도 화려한 의례를 연출하면서 활발하게 살아있다.

예컨대, 유교는 중국고전문화를 대표하고, 불교는 인도문화를<sup>1)</sup> 그리고 기독교는

1) 인도의 고전문화는 우파니샤드, 불교, 그리고 자이니즘의 3종교전통이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우파니샤드의 梵我一如사상을 공유하면서, 자이니즘은 보다 엄격한 금욕주의를 지향하고, 불교는 無我사상을 강조한 점에서만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점에서 불교가 인도고전종교의 문화전통을 극동지역에서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동에서 서유럽에 이르는 넓은 지역의 唯一神觀 종교전통을<sup>2)</sup> 대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희랍·로마의 인본주의 고전사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의 한국사회는 중국의 유교, 인도의 불교, 그리고 중동의 기독교, 그리고 희랍의 인본주의, 이러한 四大 古典文化傳統이 모두 共存하면서, 오늘의 한국 문화상황에서 각각 살아 기능하고 있다. 세계문화사에는 이들 밖에 제5의 고전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전세계고전문화전통이 공존하는 유일한 사회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밖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이웃나라 일본에는 유교가 의미가 없으며, 기독교 또한 유교보다 더 영향력이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현재 문화상황에서 기독교는 물론이고 기타 종교들 역시 그 영향력을 긍정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서양의 모든 국가에서 유교와 불교는 지적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같은 다종교사회는 없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인도와 미국이 다종교사회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印度의 경우는 세계4대 고전문화전통 가운데 儒敎는 전무한 상태이고, 기독교는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따라서 인도는 힌두이즘 안에서 다양한 종파로 나누어진 상태이며, 이에 다양한 힌두세력과 이슬람이 갈등을 갖는 상황에 있다. 다음으로 美國의 경우는 다민족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가 모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사회는 개신교라는 치즈가 “끓고 있는 냄비(melting pot)”여서 이 냄비에 외래종교가 들어나면 모두 개신교냄새에 휩싸이고 만다. 이처럼 이 두 나라는 각각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상황에 있다.

종교는 절대신념체계(absolute belief-system)라고 말할 수 있다. 절대신념체계로서의 종교는 자신 이외의 어떤 현상이나 존재의 절대성도 인정하지 않고, 다만 그 相對的價値만을 허용한다. 예컨대, 정치는 佛國土나 天國을 실현하려는 과도적 도구이며, 예술은 종교적 의례(ritual)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철학은 교리해설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종교의 실천과 교리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화형태는 모두 그 상대적 가치마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

이러한 절대신념체계로서의 종교는 타종교의 절대성도 인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른바 多宗教社會(multi-religious society)에는 종교적 갈등이 뒤따른다. 그리고 종교적갈등은 그 사회의 마지막 갈등이 된다. 우리는 이슬람과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사이의 갈등이 중동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테로의 위협으로 휘몰고 가는 까닭을 알 수 있게 되었다.<sup>3)</sup>

다종교상황은 이처럼 한 국가와 지역을 넘어, 지구촌을 좁아진 세계사회에 갈등과 혼돈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전형적 다종교사회에서는 주민의 개인 내면생활에도 가치관의 혼돈을 준다. 그 예를 인간의 근본경험의 하나인 사랑을 각 종교적 세계관에 따라 얼마나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가를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2) 유일신관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의 三宗教傳統이 있다. 이들은 창조주 하느님의 섭리에 의하여 세상이 창조되고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유대교의 유일신관에 근거한 종교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3) 출처, “한국의 종교,” 『한국종교연구, 권5』 집문당(2003), 119-128쪽.

사랑은 서양 문화전통에서는 삶의 원칙(the principle of life)나 삶의 힘(the power of life)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사랑(愛)을 喜怒哀樂 곧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로 상대화 시킨다. 그러면서, 삶의 원칙의 자리에 어짐(仁)을 놓는다. 이처럼 유교는 삶의 존재론적 원칙을 감성적 색깔이 짙은 “사랑”에서 윤리적 의미가 짙은 “仁”으로 전환하여 풀이한다. 불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사랑의 因果論的 結果에 주목하면서, 예컨대, 범구경은 “사랑하지 마라, 사랑을 고통의 원인이니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삶의 원칙의 자리에 “慈悲”를 놓는다. 삶의 원칙에 대한 해석이 이처럼 다르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옳다고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세계종교사 학자로서 필자는 언제 이렇게 고백한다. “어떤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처럼 구조적으로 다른 세계관의 영향을 고루 받는 한국인은 아마도 그의 인생관은 불교적이고, 그의 윤리관은 유교적이며, 그의 행동철학은 최근에 점적 기독교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의 지성적 태도는 또한 회합적이고. . . 아마도 그의 민족문화전통 또는 국가관은 대단히 민족종교적이다. 그에다 그의 기복관은 완전히 무속적이다. 이처럼 많은 세계관이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한국인은 경우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에게 필요한 카드를 그때마다 적절하게 뽑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인의 표면성향은 곧 다종교상황에서 온 것이다. 이는 다시 다종교상황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혼돈을 제공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만적이다. 그러나 가치관이 잘 정비된 사회에서 건강한 개인이 자기지만적인 행동을 한 경우, 그는 반성하게 된다. 그러나 다종교상황에서 성장한 사람은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는 그때 그 결정이 옳은 판단에 이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한국의 사회가 지닌, 특히 오늘 한국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이없는 혼돈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직시하게 된다. 다종교사회는 곧 다원가치 사회이다. 다원가치상황은 곧 혼돈상황의 또 다른 이름이다.

### III. 종교상황의 역사적 흐름

다종교상황은 사회질서와 개인의 정신생활에 이중적으로 차치혼돈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종교는 사회질서와 개인의 정신생활에 각각 엄청난 통합력(the integral power)을 행사하기 때문에, 다종교상황은 사회와 개인의 정신적 생활에 혼돈을 가져다주게 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회에도 하나 이상의 종교가 공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종교상황은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나 다종교상황에서 종교들의 관계유형에 따라 사회통합(social integrity)의 형식이 달리 나타나게 된다.

역사적으로 종교적 사회통합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sup>4)</sup>

- (1)단일종교 사회(single religion society)
- (2)단일종교 주도사회(single religion leading society)
- (3)다종교사회(multi-religious society)
  - ①다종교혼합 사회(multi-religious complex society)
  - ②다종교 개방사회(multi-religious open society)

먼저 (1)단일종교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예컨대 주리히에서 칼빈이 주도했던 개신교 공동체와 같이 공간과 시간적으로 제한된 경우는 제외한다면. 한마디로 단일종교 사회는 곧 이론적 추상개념일 뿐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는 사실상 (2)단일종교 주도사회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세계사적으로는 서양의 중세사회나 현재의 이슬람 사회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 한국사에서는 대승불교에 의하여 통일신라 사회가 문화적 통합을 이루었던 경우와, 성리학에 의하여 조선조가 창립되고 성리학의 꽃을 피웠던 시기가 그 좋은 사례가 된다. 말하자면 위의 4사례들은 하나의 종교가 그 사회를 주도하면서 그 사회문화가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도적 종교에 의하여 그 시대의 문화특성이 결정되고 또 차별화된다.

(3)다종교사회는 한마디로 주도적 종교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적 갈등이 전사회적으로 만연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사에 나타난 일반적경향이다. 이러한 일반적 경향은 (3)-①다종교혼합 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 경합하면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양성적인 갈등과 불안을 불러오게 된다.

지금까지의 다종교상황은 곧 다종교혼합상황이 지닌 사회적 불안요인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현상이 그러하듯이, 다종교상황 역시 어두운 면만 있고, 밝은 면이 전혀 없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현상만은 아니다. 만약 다종교상황에서 절대신념체계로서의 종교간의 진정한 對話가 이루어진다면, 전혀 새로운 가능성이 그 안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한 축복의 경우가 곧 (3)-②다종교 개방사회이다.

다종교開放社會는 곧 모든 종교가 서로 타종교를 인정하면서 동등한 상화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신을 포함하여 타종교를 모두 동등한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은 곧 他宗教의 絕對性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절대신념체계로서의 종교가 타종교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은 곧 自己宗教를 상대화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타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적어도 敎理學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3)-②다종교개방사회에 도달하는 길은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종교계에서 추진한 각종 종교대화운동은 (3)-①다종교혼합 사회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종교혼합 단계에서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2)단일종교 주도사회에서 누렸던 영광을 되찾으려는 꿈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존하는 타종교와 연대관계를 맺으려한다. 따라서 꿈은 과거에, 그러나 현실적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방편적으로 타종교와의 관계

4) 필자 외, "고려종교사상의 특성과 흐름," 『고려시대의 종교와 문화: 그 역사적 상황과 복합성』 서울대학교 출판부(2002), 47-8쪽.

개선을 추구하는, 이른바 걸 다르고 속 다른 혼합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만약, (3)-②다종교개방사회에 이르게 되면, 내가 그러하듯이 타종교인도 절대신념체계를 지니고 절대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타종교인에서 내모습을 발견하고, 내 속에서 타종교인의 모습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비로소 종교인이 대등하게 되고, 그들의 개방된 태도에 의하여 비로소 종교적 교리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불교, 가톨릭, 그리고 원불교의 여성 성직자들로 구성된 삼소회가 모든 것을 쉽게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다종교 개방사회의 이념은 곧 다원주의(pluralism)이다. 다원주의 개방질서는 곧 현대지구촌이 요청하는 이념이다. 이제 단일종교주도사회를 통하여 이룩하였던 과거의 고전문화질서는 더 이상 재현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거의 고전문화전통이 모두 자신의 특성을 들어내서 인류사회를 아름답게 재건하는 노력을 각각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해주는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개별 종교가 시대를 주도하려는 고집을 버린다면, 이러한 상황이 곧 다종교개방사회이다.

가장 전형적인 다종교상황을 이루고 있는 한국사회가 다종교개방사회를 이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종교개방상황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불가능하다. 한국이 세계의 전형적인 다종교상황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3)-②다종교개방사회로 안내하는 실험실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제 한국에서 다종교개방사회를 이루는 것은 한국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질서 있게 극복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 자체가 지구촌으로 좁아진 세계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적 다종교상황에서 다종교개방사회의 질서를 찾는 길은 첫째, 한국의 문화를 크게 발전시키는 것이며, 둘째, 그것은 세계문화사 미래를 위한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일이다. 이처럼 이 작업은 곧 우리민족의 문화전통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노력이며 동시에 우리가 세계화의 주역이 되는 길이 된다.

#### IV. 한국종교박물관이 갈길

우리는 지금까지 첫째, ①다종교혼합 단계에서 ②다종교개방 단계로 한국의 종교상황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세계종교사의 흐름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②다종교개방 단계로 진행되는 일은 개별종교의 교리학적 신념체계에서 출발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그 진행은 곧 실천적 교류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실천적 교류관계를 유도하는 구체적 현장이 곧 종교박물관이다. 따라서 필자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박물관의 창립은 실로 중차대한 문화사적

의미가 있는 일이다.

개별 종교가 운영하는 종교박물관은 종교의 특성상 ①다종교혼합단계의 특성을 벗어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리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한국사회가 ②다종교개방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다종교상황을 개방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적 종교박물관을 창건하는 데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내일의 지구촌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개방적다원주의 이상(the open and pluralistic ideal)을 구체적으로 전시하는 종교박물관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개방적 다원주의 이상을 지닌 한국의 종교박물관에서는, 한국의 다종교사회의 종교문화재들을 통하여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과 꿈, 그리고 창조적 노력의 결실들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체험하며, 나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구촌의 인류가 지닌 내일에 대한 희망과 이상을 교류하고 전수하는 이른바 총체적 문화에 대한 전인적 체험장이 될 것이다.

---

윤이홍교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yhyoon5@korea.com](mailto:yhyoon5@korea.com) ☎031211⑦38.6☑박물관협회

---

□▣▤▥▦▧▨▩▪▫▬▭▮▯▰▱▲△▴▵▶▷▸▹►▻▼▽▾▿⋄⋅⋆⋇⋈⋉⋊⋋⋌⋍⋎⋏⋐⋑⋒⋓⋔⋕⋖⋗⋘⋙⋚⋛⋜⋝⋞⋟⋠⋡⋢⋣⋤⋥⋦⋧⋨⋩⋪⋫⋬⋭⋮⋯⋰⋱⋲⋳⋴⋵⋶⋷⋸⋹⋺⋻⋼⋽⋾⋿⓪⓫⓬⓭⓮⓯⓰⓱⓲⓳⓴⓵⓶⓷⓸⓹⓺⓻⓼⓽⓾⓿ⒺⒻⒼⒽⒾⒿⓀⓁⓍⓎⓏⓐⓑⓒⓔⓕⓖⓗⓘⓙⓚⓛⓜⓝⓞⓟⓠⓡⓢⓣⓤⓥⓦⓧⓨⓩ⓪⓫⓬⓭⓮⓯⓰⓱⓲⓳⓴⓵⓶⓷⓸⓹⓺⓻⓼⓽⓾⓿ⒿⓀⓁⓍⓎⓏⓐⓑⓒⓔⓕⓖⓗⓘⓙⓚⓛⓜⓝⓞⓟⓠⓡⓢⓣⓤⓥⓦⓧⓨⓩ⓪⓫⓬⓭⓮⓯⓰⓱⓲⓳⓴⓵⓶⓷⓸⓹⓺⓻⓼⓽⓾⓿

---

☎03월일⑦-매☑보널곳/ Tel☎우&pm.No      ①②③④⑤⑥⑦⑧

---